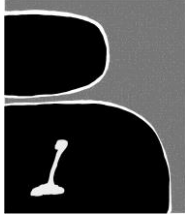




우리는 부처님 제자들이다. 스스로 타오르며 佛性을 밝힌다.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법회 : 첫째주, 셋째주 일요일  
 첫째주 일요일 11시 : 초하루 기도 및 인등 기도 법회  
 셋째주 일요일 11시 : 전법기도 법회 및 찬불가 배우기

☉ 조지아주 애틀랜타 법회: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 Youth Dharma Summer Camp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

기간: 2015년 6월 13일부터 7월 25일까지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 까지

☉ Youth Dharma Summer Camp 1박 2일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

기간: 7월 25일 - 7월 26일  
대상: 6학년 - 12학년                      장소: 애틀랜타 부다나라 사찰

☉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 (붓다회)

“미국 부다나라 한국 후원회 (붓다회)”에서 함께 배우고 정진과 더불어 봉사를 할 봉사단원들을 기다립니다.

☉ - Buddha's Disciples Zen Meditation - 부처님 제자들의 참선 모임

Buddhanara Temple in St. Louis	Buddhanara Temple in Atlanta
☉ Every Tuesday 6:30 pm: Program: Evening Chenting & Meditation	☉ Every Saturday 9am Program: Sitting & Walking Meditation, Da-do (Tea Ceremony)

### 이달의 법구경

밀림 속 성화 (聖火) 백년을 돌보아도,  
 잠깐이나마 부처님께  
 예경 표함만 못하니,  
 이 예경  
 백년 참배보다 한결 위대하다네.

If a man for a hundred years should worship the  
 sacred fire in the forest; and if another only for a  
 moment paid reverence to a self-conquering man,  
 this reverence alone would be greater than  
 a hundred years of worship.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 생명 용맹정진하여 불국정토 성취한다.

부다나라 템플 (Buddhanara Temple)

[www.buddhanara.net](http://www.buddhanara.net)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 874 Berick Dr. St. Louis, MO 63132

☎ (314) 993-0185

☉ 조지아주 애틀랜타 : 2197 Gravel Springs Rd. Buford, GA 30519

☎ (770) 945-5345

다시 듣는 사자후: 성철스님

###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의 대자유 언어야”

\* 1976년 6월 27일자 대한불교(불교신문 전신)654호 1면에 실린 ‘염화실 탐방’ 해인총림 방장 성철대선사 인터뷰(대담: 당시 편집국장 항봉스님) 기사를 재정리했다.

가슴이 탁 트이고 속물이 쪽 빠지는 느낌이다. 송림(松林) 시오릿길, 가야산 오름길로 접어들면 이백(李白)의 <산중문답(山中問答)>을 스무 번 서른 번이라도 되 너이고 쓴 시정(詩情)을 만끽할 뿐. <도화유수(桃花流水)>의 홍류동 계곡과 <별유천지(別有天地)>의 해인성지(海印聖地)이고 보면 이 어울리잖는 기자흥내의 땀지린 얼굴을 언젠가는 돌보기안경 낀 전당포 집 할멈에게 맡겨두고 잃은 초발심(初發心)을 찾고픈 마음 간절하였다.

“니 오랜만일세. 몇 년 됐제? 어데 있었노?” 장삼에 가사까지 곁들이고 스님이 계신 방안에 들어서자 스님의 법음(法音)이 평상시도(平常是道)로부터 시작된다.

- 그동안 군(軍)에 있었습니다. 시각생 병정놀이를 끝마치고 요즘엔 서울사람들 흥내 내기에 업장(業障)의 무게나 더할 뿐입니다. 찌들고 병이 든 저의 모난 알음알이를 큰스님께서 살피주시어 크신 법력으로 치료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 군(軍)에 있었나? 늦게 갔구나. 서울이 산골보다 좋나?”

스님께서서는 좀체로 일상생활의 말씀만 하실 뿐 기자 따위의 질문쫓이야 어린아이의 코흘리개 소리로나 접어두신듯한 느낌이다. 그렇다면 낭패다. 스님께서서는 예상했던 대로 기자의 질문에 응해주지 않을 것 같다.

- 저에 있어 가장 큰 수수께끼요 일상의 화두(話頭)는 영혼의 불멸설(不滅說)과 육도윤회설(六途輪回說), 그리고 전전생(前前生)과 내세(來世)가 실존(實存)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 있을 때 제 나름대로 뭔가를 깨달아 오로지 이 하나뿐인 생명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누가 뭐래도 전생담(前生談)이나 내세관(來世觀)을 결코 믿지 않으며 팔만장경의 부처님의 말씀은 어린아이를 달래기 위한 팔만사천 종류의 요리음식에 불과한, 구차스러운 한갓 방편법문(方便法門)임을 알았습니다.

“그래, 그럼 이 병신아! 자연계의 불멸(不滅)을 믿나? 안 믿나? 모든 자연계는 에너지와 질량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나? 에너지를 물에 비유한다면 질량은 얼음이다. 물이 곧 얼음이요 얼음이 또한 물 일 따름이다. 시각적으로는 자연계가 무상(無常)한 것으로 보이나 근본요소는 단일체이므로 영원히 변치 않고 존재될 뿐이다. 우리의 생명도 어떤 의미에서는 에너지로 볼수 있다. 그러기에 자연계의 불생불멸(不生不滅)하는 근본요소와 조금도 다름없이 우리의 생명도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한 생명과 무한한 능력을 향시 지니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미 원자물리학에서도 근본요소인 생명의 단일체는 변하지 않는다는 불생불멸(不生不滅)을 주장하고 있다. 니도 <브라이다 머피를 찾아서>라는 사자(死者)와의 대화(對話)를 읽어 봤제? 영국의 호프나 웰레스 그리고 미국 버지니아대학의 스티븐슨 같은 이는 이미 전생의 비밀과 초능력(超能力)의 비밀을 영(靈) 능력으로 알아내어 전생 기억연구를 활발히 전개하고 있는 사실을 아나? 모르나? 영국의 케-논 박사의 연구논문을 보면, 너 같은 멍충이가 깜짝 놀라 나자빠질게 많이 있다. 요즈음 그 흔해빠진 심령과학서나 무당점쟁이의 그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분명히 우리의 생명인 영혼은 불멸하며 불설(佛說)이 아니드래도 육도윤회만은 뚜렷한 진리이다.”

기자는 조금도 망설임 없이 평소에 궁금했던 의심을 한꺼번에 몽땅 털어놓았다. 이왕이면 타작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였다.

“콩을 열 개 쥐고 잘 알아맞히는 사람에게 물으면 정확히 잘도 안다. 그러나 자신도 콩의 숫자를 모를 만큼 몽땅 쥐고 물어보면 알지 못한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을 너도 주워들어 알겠지마는 정신적인 영파(靈波)의 능력은 불가사의 한 것이다. 텔레파시의 능력과 작용은 현대과학의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윤회사상(輪廻思想)은 붓다 이전에도 있었다. 동에서 해가 뜨는 것을 서쪽에서 해가 뜬다고 우길 수는 없는 것이다. 동에서 해가 떠 서쪽으로 기우는 것이 자연계의 변함없는 법칙이요. 정답이다.

<화엄경>에 보면 일체법불생(一切法不生), 일체법불멸(一切法不滅), 약능여시해(若能如是解)

제불상현전(諸佛常現前)이란 말이 있다. 영원토록 불생불멸하는 것은 진여본성(眞如本性) 자리임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과법칙은 색공(色空)을 초월한 영원한 진리임을 깨달아 시간의 제약에서 시간의 지배자가 되어야 한다. 영원한 생명 속에 무한한 능력자가 되어야 하며 대생명의 대자유인이 되어야 한다. 대생명의 자유능력에 따른 대활동이 성불이요 해탈(解脫)이며 열반이다. 거울에 때를 지우면 대광명이 우주를 비춘다.”

스님께서서는 열반의 경지를 또렷이, 그리고 새로운 뭔가를 던져주시는 게 분명하다. 스님의 말씀은 그대로 날카로운 지혜의 화살이 되어 소낙비처럼 기자의 멍든 영혼에 와 닿아 또하나의 불을 켜다.

“<기신론(起信論)>에 이일체고(離一切苦)하고 득구경락(得究境樂)이란 글귀가 있다. 똥덩이 흙덩이 잿더미처럼 허무하게 흩어져 갈게 아니라 씁 없는 정진력으로 일체의 고됨을 여의고 구경락(究境樂)을 득(得)할 수 있는 살아있는 종교인이 되어야 한다.

생멸멸이(生滅滅而)한 적멸위락(寂滅爲樂)을 어떤 초심자(初心者)는 잘못 이해하여 일체가 다 끊어진 상태로 알고 있으나 열반이란 거울에 낀 때를 지우는 작업이 끝났을 때의 대광명(大光明)과 대적정(大寂靜)과 대자유를 뜻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육도윤회의 고된 수레바퀴에 시달리는 게 아니고 윤회(輪廻)의 수레바퀴를 마음대로 운용(運用)할 줄 아는 것이 해탈(解脫)이요 열반(涅槃)이다.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력을 지닌 무한한 능력이요, 대생명의 자유이다. 한 방울의 물에 구억충(九億蟲)이 있다는 불설(佛說)은 이제 과학에서도 조금은 이해하고 있는 모양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백억세계(百億世界)의 일월(日月)도 언젠가는 밝혀지리라 생각되지 않나?

백억세계의 백억일월을 볼 수 있는 무한한 생명의 능력을 말씀하신 부처님의 말씀은 더 할 수 없는 인간선언이 아닐 수 없다.

일체가 적멸(寂滅)하여 단경(斷境)의 상태가 열반이 아니라 일체의 속발을 벗어난 대자유를 얻는 게 열반임을 알아야 한다. 무상대열반(無上大涅槃)이여 원명상적조(圓明常寂照)로다. 알겠나? 이 명충이 똥덩이 같은 놈아!” 본시 기자의 얼굴 생김이 똥자루 같은데다 큰스님께서 에누리도 없이 명충이에 똥덩이 같은 놈이라니 병신 머저리 같은 기자의 얼굴이 더욱 일그러져 구린 냄새나 거두어들이는 작업이 필요하겠구나 생각하며 속으로 일소(一笑)하였다. 미리 여기쯤서 독자제위(讀者諸位)께 밝혀둘게 있다. 큰스님의 법문이 중중무진수(重重無盡數)로 이어져내려 영혼의 불멸(不滅)을 자신감 넘치도록 부정하던 게 철저히 긍정하게 됐을 만큼 스님의 범음은 회오리바람이었고 번갯불이었으며 화살이었고 빛이었음을 밝혀둔다.

왜냐하면 시원찮은 기억력 탓도 있겠지만 글재주마저 그렇고 그렇다 보니 큰스님의 크신 법의 실타래에서 반오라기 썸이나 옮겨 놓는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끝으로 성철대선사님의 ‘일원상’을 힘겹게 얻어온 사연(?)을 지면 관계로 조금이라도 옮기지 못함을 아쉽게 생각한다.

이제 허락도 없이 스님의 범음을 불교신문에 담게 됐으니 다음 스님을 뵈오러 갈 땐 종아리 맞을게 분명하다.

#### ■ 성철스님은 ...

1912년 경남 산청군에서 출생해 1936년 해인사에서 동산(東山)스님을 은사로 출가, 1938년 4월 범어사에서 수선안거 이래 금강산 마하연, 대구 파계사, 영천 은해사 등에서 하안거를 지냈다. 1947년 “부처님 법답게 살자”는 기치 아래 봉암사에서 청담, 자운, 월산, 해암, 성수, 법전스님 등과 결사(結社)를 했다.

1955년 해인사 초대 주지로 임명되었으나 취임하지 않고, 1956년부터 1963년까지 파계사 성전암에서 동구불출(洞口不出)하며 하안거, 동안거를 지냈다. 1966년 <육조단경>, <금강경>, <중도가> 및 중도이론을 대중들에게 최초로 설법했다. 1967년 해인총림의 초대 방장으로 취임, 동안거 기간 중에 백일법문(百日法門)을 했고, 열반 때까지 방장으로 퇴설당과 백련암에 주석했다.

1981년 6월 제 7대 종정을 맡아 10년의 임기를 마친 뒤 1991년 8월 제 8대 종정으로 재추대 됐다. 스님은 3000 배 절을 한 불자에게만 접견을 허용한 것으로도 유명하다. 성철스님은 곳곳이 앓은 채 잠을 자고 입도 열지 않는 장좌불와의 고된 수행을 실천했으며, 종정 취임범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한글불축범어 ‘자기를 바로 봅시다’ 등 한국불교사에서 수많은 언설과 일화를 남겼다. 1993년 11월 4일 산문에 든 지 59년 만에 성철스님은 “참선 잘 하라”는 말과 함께 불생불멸의 길을 떠났다.

[불교신문 3118 호/2015년 7월 4일자에서 발췌]

#### 국제소식: 국제연꽃마을, 베트남 교육시설 완공...전쟁 상처 씻는다

베트남에 사회복지타운 건립을 추진 중인 국제연꽃마을이 교육시설을 세우고 본격적 운영에 들어갔다.

사단법인 국제연꽃마을(회장 원명스님)은 지난 6월 26일 베트남 광남성 탐키시 안푸현 지역에 건립하고 있는 한국형 사회복지타운 ‘베트남연꽃마을’ 내 한글학당과 도서관, 숙소 등 3개 동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에는 원명스님을 비롯해 불국사 관장 종상스님, 전 동국대 정각원장 범타스님, 연꽃마을 이사 수현스님, 옹웬 반 루어 탐키시 당위원회 비서, 반 안 투언 탐키시장 등 사부대중 300여명이 참석했다.

광남성 지역은 베트남 전쟁 때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으로 복지타운을 조성해 한국과 베트남 간 전쟁의 상처를 씻어내고 평화와 화해의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각현스님(전 국제연꽃마을 회장)의 원력이 담긴 곳이다.

스님의 원력에 따라 국제연꽃마을은 지난 2011년 광남성 탐키시로부터 7만㎡(2만여평) 부지를 무상임대 받아 2012년 12월 첫 기공식을 갖고 보육원, 장애인시설, 직업훈련원, 노인요양원 등의 시설이 들어선 복지타운 ‘베트남연꽃마을’을 조성해오고 있다. 1차로 교육시설 준공을 기념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원명스님은 “지난해 입적하신 전 회장 각현스님 원력으로 시작한 한글학당 건립 불사를 마무리 짓고 회향하는 기쁨을 맞이하게 됐다”면서 “스님이 발원했던 바와 같이 한글학당은 시민들 가운데 한국어를 배우고자 하는 베트남 사람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이 모여 ‘베트남연꽃마을’ 모습이 갖춰지고 있다”며 “한국 후원자들과 광남성 탐키시 당국에도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고마움을 표했다.

이날 준공식에서 불국사 자원봉사단 부단장 일운스님(울진 불영사 회주)스님은 베트남연꽃마을 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을 쾌척하기도 했다. 단장 종상스님은 발원문을 낭독하며 “오랜 도반이자 친구로 함께 했던 덕산당 각현스님의 마음과 눈길이 곳곳에 배어 있는 듯하다”며 “‘베트남연꽃마을’이 한국 연꽃마을 못지 않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준공식 후에는 각현스님 흉상 제막식도 이어졌다. 제막식 후 탐키시는 각현스님을 비롯해 원명스님, 조당호 국제연꽃마을 베트남지부장, 김영태 국제연꽃마을 사무총장 등에게 명예시민권을 수여하며 복지타운 조성 및 향후 사업에 대해 협력을 약속하기도 했다. 반 안 투언 탐키시장은 “베트남을 10년 이상 오가며 돈독한 우정을 보여주고 항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베트남 시민들을 사랑해주신 각현스님을 영원히 기억하고 존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연꽃마을’은 앞으로 한국 세종학당재단으로부터 ‘세종학당’으로 지정받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지역민들에게 한국어 및 한국문화를 보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또 10개년 계획에 따라 직업훈련시설, 어린이집, 노인복지시설, 의료시설 등을 추가로 건립해 오는 2020년 한국형 복지타운을 완공할 예정이다. 불교신문에서 발췌

## 부와 가난을 보는 붓다의 눈 가난·부의 집착 찬양하지 않아...보시가 기본 가르침

마성스님 동국대 겸임교수

인간의 본질적 특성 가운데 하나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다. 라틴어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경제적 인간(economic human)’이라는 말이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보다 많은 재화(財貨)를 획득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동물들은 필요 이상의 먹이를 저장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은 근원적인 이기심 때문에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먹이를 더 많이 저장하려고 한다. 그때부터 사유재산이라는 개념이 생겼다. 이처럼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끝없는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을 ‘경제적 동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래 자본주의(capitalism)는 개인적 소유의 욕망에서 비롯되었다. 사실 자본주의의 역사는 곧 인류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는 ‘자본에 의한 이윤의 추구’를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자본주의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 활동과 사유재산 제도를 보장한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다른 말로 ‘시장경제’라고 부른다.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움직이는 핵심 동력은 이익이다. 기업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익을 추구하려고 한다. 때문에 자본주의가 성장하면서 부자와 빈자 사이의 격차가 더 크게 벌어졌으며, 국가 간의 빈부격차도 더욱 커지고 있다. 특히 신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경제적 불평등이 더욱 더 심화되고 있다. 또한 자본주의는 오직 이윤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과 환경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고, 인간의 끝없는 탐욕심을 더욱 조장시켜 인간의 정신을 황폐화시킨다.

붓다는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기 때문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처럼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 인류는 자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일깨워주었다. 실제로 붓다는 우선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을 불교용어로 ‘보시(布施)’라고 한다. 보시의 원어 ‘다나(dāna)’는 ‘베풀다’, ‘나누어주다’, ‘분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붓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보시(布施). 지계(持戒). 생천(生天)을 강조했다. 이것은 베풀고 절제를 통해 진정한 행복을 추구하라는 뜻이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삼론(三論)이라고 부른다. 붓다는 가난을 찬양하지 않았다. 가난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괴로움이기 때문이다.

붓다는 [금색왕경(金色王經)]에서 “어떤 괴로움이 가장 무서운가 하면, 빈궁의 괴로움이다. 죽는 괴로움과 가난한 괴로움 두 가지가 모두 다름이 없으나 차라리 죽는 괴로움을 받을지언정 빈궁하게 살지는 않으리라.”(大正藏 3, p.389c)고 설했다.

또한 붓다는 “전륜성왕사자후경(轉輪聖王獅子吼經)”에서 가난이 범죄와 타락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DN III, p.65f.) 가난은 인류의 적이다. 그래서 붓다는 당시의 통치자였던 왕들에게 범죄자를 징계하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조언했다. 그 대신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범죄는 점차 줄어들고 평화로운 사회가 건설된다고 왕들에게 충고했다. 이러한 붓다의 가르침은 오늘날에도 매우 유용한 경제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붓다는 결코 가난을 예찬하지 않았다. 붓다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재가자들에게 재산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다른 이웃도 돌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붓다는 오늘날의 재벌 총수에 해당되는 아나타핀디카(Anāthapiṇḍika, 給孤獨)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여기 성스러운 제자는 열정적인 노력으로 얻었고 팔의 힘으로 모았고 땀으로 획득했으며 법답고 법에 따라서 얻은 재물로 자신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부모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아들과 아내와 하인과 일꾼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친구와 친척들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바르게 행복을 지키도록 한다. 장자여, 이것이 [네 가지 가운데서] 첫 번째이니, 그가 합리적이고 알맞게 재물로써 행한 것이다.(AN II, pp.67-68)

이와 같이 재가자에게 있어서 재물은 자신의 행복을 지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재물이 없으면 궁핍의 고통을 면할 수 없다. 재물이 있어야 나와 친척과 이웃에게 안락을 주고, 성자들을 공양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재가자는 우선

경제적으로 안정을 이루어야 한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야 비로소 그 다음 단계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 붓다는 이 타고난 인간의 본성을 잘 알고 있었다. 붓다에 의하면, 이것은 바람직하고 소중하며 즐거운 것이지만 얻기는 어려운 것이다. 한 개인이 부유하고 풍요해지면, 그는 자신의 친척들과 스승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장수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세 가지 조건만으로는 재생을 믿는 한 개인의 삶을 행복하고 성공적이며 완전하게 만들지 못한다. 재산과 좋은 평판과 장수의 성취와 함께 그는 욕신이 스러지면, 저 세상에서 행복한 목적지, 하늘세계[天界]에 이르기를 바란다.(AN II, p.66)

이 설명에 따르면, 경제적 여건은 완전하고 만족스런 삶을 위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차대한 요소이다. 경제적 여건이 튼튼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그 개인은 어떤 희망도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된다. 자신의 모든 희망과 전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그의 재산이다. 평판과 장수 및 사후의 행복한 목적지는 재산의 결과로써 생기는 조건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얻기는 어렵다.

한때 디가자누(Dighajānu)라는 사람이 붓다를 찾아와 말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처자식과 가정생활을 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저희들에게 현세와 내세에서의 행복에 도움이 될 어떤 가르침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붓다는 이 세상에서 인간의 행복에 도움이 되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에게 말했다.

첫째, 자신이 종사하는 어떤 직업에서든 능숙하고 효율적이며, 근면하고 활동적(uttāna-sampada, 勤勉具足)이어야 한다. 또한 그것을 잘 알아야 한다. 둘째, 이마에 땀을 흘리며 정당하게 벌어들인 자신의 소득을 보호(arakkha-sampada, 守護具足)해야 한다. 이것은 도적들로부터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 모든 생각은 당시의 사회적 배경을 고려하여 이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믿음직스럽고 학식 있고 덕망이 높고 도량이 넓고 지적인 좋은 친구(kalyāṇa-mitta, 善友)를 사귀어야 한다. 그런 친구는 자신을 악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넷째,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게 자신의 소득과 비례해 합리적으로 소비해야 한다. 즉 너무 탐욕스럽게 축재해서도 안 되며 너무 낭비해도 안 된다.

바뀌 말하면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samajīvitā, 等命)해야 한다.(AN IV, pp.281-283)

위 경전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재산임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으면 자신의 어떠한 미래의 꿈도 실현할 수가 없다. 재가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한 선결 과제는 바로 경제적 안정이다. 붓다는 인간 사회에서 재산이 미치는 두드러진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붓다는 경제적 조건은 개인과 국가의 힘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인간은 누구나 부유하고 풍요로운 사람이 되길 원한다. 그렇다고 해서 붓다는 인간의 끝없는 욕망과 집착으로 축재(蓄財)하는 것을 찬양하지도 않았다. 과도한 부는 오히려 타락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가난이 범죄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또한 과도한 부도 타락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래서 붓다는 자신의 분수에 맞게 생활하는 중도적 삶을 권장했다.

끝으로 사회의 번영을 위해서는 먼저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베풀어야 한다는 것이 붓다의 가장 기본적인 가르침이다.

월간 《불광》 제 489 호(2015년 7월호), pp.26-29

### 계율을 잘 지키는지 항상 살펴라 :뜻으로 보는 입보리행론 중에서

하도겸 칼럼니스트

말은 마음과 앞뒤가 맞듯이 조리있게 부합해야하며, 뜻을 분명히 해서 마음에 와 닿아 호감을 갖게 하며, 진심과 탐심 등의 집착과 증오를 끊고 부드럽게 적절하게 말하고 행해야 합니다. 눈으로 남을 볼 때도 ‘그들이 있기에 자신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채려 온전히 진실하고 연민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항시 커다란 원력으로 선행에 힘써서, 번뇌망상에 대해서는 (대치법을 일으켜) 다스리고, 공덕과 은혜의 복전이 되도록 고통당하는 중생들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야 합니다. 지혜와 신심을 가지고 선업을 행할 때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하거나 남탓도 하지 말고 오직 술선수범해야 합니다.

보시바라밀 등 육바라밀을 우선순위를 정해 점차로 순서대로 힘써 행해야 합니다. 작은 이익 때문에 큰 뜻을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남을 이롭게 하는 일[이타행]을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바로 알아 차려, 항상 다른 이들의 행복을 위해 [이타행에] 힘써야 합니다.

대자비의 부처님께서 멀리 내다보시고 [소승에서] 금지된 것도 [대승에서는] 허용하셨습니다.

동물, 병자, 의지할 곳 없는 이, 계율을 지키는 걸식 수행자들에게 보시를 하고 분수에 맞게 적절하게 나눠주며 세 가지 법의(승복) 외에는 (자신이 소유하지 말고 남들에게) 모두 베풀어야 합니다.

정법의 정진에 써야 할 이 몸을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소모해서 해롭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행하면 중생의 원을 보다 속히 이루게 됩니다. 뒤집혀지고 전도된 잘못된 연민으로 이 몸을 함부로 써서는 안됩니다. 어떤 일을 하건 이생과 내생에서 반드시 보리를 이루기 위한 수단(씨앗)으로 써야 합니다.

존경심이 없는 이에게는 법을 설하지 말며 아프지도 않으면서 머리를 싸매거나, 양산이나 막대기나 무기를 지녔거나 두건을 두들려 얼굴을 가린 이들에게는 법을 설하지 말아야 합니다. 소송에게 대승의 넓은 법을 설하지 말며 남편을 동반하지 않은 여자에게 설하지 말아야 한다. 소송과 대승의 법을 [따르는] 똑같이 모두 존중하며 행해야 합니다. 광대한 법의 그릇[법기 法器] 즉 대승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이에게 소송의 법을 담으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율을 지키는 행인 지계행(持戒行)을 절대로 버리지도 말아야 하며 현교[경전]와 밀교[주문]를 구분하여 현혹시켜 그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치아를 닦는 데 쓰는 나무 조각 치목(齒木)이나 가래침을 뱉고 나면 안 보이게 잘 덮어야 하며, 소변이나 용변을 길거리나 우물에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됩니다. 많은 음식을 한 입에 가득 우겨넣거나 찹찹대며 입을 크게 벌리고 먹지 말아야 합니다. 다리를 쭉 뻗고 앉지 말아야 하며 팔짱을 끼는 등 교만스럽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남의) 여인과 단 둘이 마차나 침실에 있지 말며 무엇이 세상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기거나 혐오하거나 불신하는지 모든 것을 몰아서 삼가야 합니다. 길을 물어올 때는 한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죽인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므로 그러)지 말며 공손하게 오른손을 모두 사용해서 손가락을 다 펴서 가리켜야 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 부를 때도 두손을 너무 크게 흔들지 말고 조그만 손짓으로 가볍게 손가락을 뿜기는 정도의 소리로 신호를 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의 안정을 잃게 되어 율의(律儀)에서 어긋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실 때처럼 자세와 방향[혹은 오른쪽]을 취해 누워야 합니다. 깨어나서도 정지(正知)를 속히 일으킬 수 있게 잠들기 전부터 반드시 확실하게 다짐해야 합니다.

보살의 행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으니, 그전에 먼저 마음을 닦는 수행이 더욱 확고해질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 행해야만 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세 번씩 (참회와 공덕 그리고 회향의) 삼취경(三聚經)을 염송하며 불보살(의 보리심)에 의지하면 남은 죄는 따라서 정화되어 소멸됩니다. 스스로 하는 자력(自力)이든 남의 힘으로 하는 타력(他力)이든 어떤 상황에서 있더라도 가르쳐 주신 대로 매순간 적절하게 상황에 맞춰서 배우고 익히도록 해야 합니다. 보살들이 가르치지 않은 것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임하는 지혜로운 자에게 공덕이 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직접이든 간접이든 중생 이익을 위한 일이 아니면 행하지 말아야 하며, 오로지 중생의 이익을 위해서 하며 모든 행은 깨달음을 위하여 회향해야 합니다.

항상 대승의 의미에 정통하여 보살의 계율을 잘 지켜온 선지식(스승/법사)을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화엄경의 덕생동자(德生童子) 해탈법문(解脫法門)에 나오는 대로 '스승에 의지하는 방법'을 배워 익혀야 합니다. 이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부처님이 말씀하신 다른 경전을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많은 경전에서 배워야 할 바를 보이셨으니 반드시 경전을 읽어야 합니다. 특히, 허공장보살경(虛空藏菩薩經)의 보살계학은 제일 먼저 보아야 합니다. 넓고 깊으면서도 자세한 집학론 즉 대승집보살학론(大乘集菩薩學論)은 항상 반드시 몇 번이고 보고 공부해야 합니다. 더불어 때때로 간추려 놓은 집경론(集經論)도 보아야 합니다. 또한 존귀한 나가르주나 즉 용수보살께서 지으신 또다른 집경론도 부지런히 보아야 합니다. 어떤 경장에서든 금지한 것은 하지 말고 하라한 것은 그대로 따라서 열심히 행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보살이 배울 바를 잘 알아, 바르게 실천해야 합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거듭거듭 살피는 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정지(正知)를 지키는 것입니다. 읽기만 하거나 말로만 떼운다면 보살을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처방전을 읽는 것만으로 병자에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몸으로 실천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교닷컴 2015년 07월 03일자 에서 발췌

신행:

질수행 : 전예습 씨

사업실패 후 판사랍된 남편 ; 자살충동·갑상선암 고통 ; 절하며 회복... 가정도 화목

사업실패와 방황으로 남편은 완전히 판사랍으로 변해 버렸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힘겨운 가정 살림을 꾸려 나가느라 버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몸과 마음이 천근만근으로 무거운 나날이었다. 남편을 원망하며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앞에 나도 모르게 모든 걸 놓아 버리고픈 마음이었다. 아파트 베란다를 내려다보며 자꾸 뛰어 내리고 싶은 충동이 일어났다. 아무에게도 말도 못한 채 참고 또 참고 꺾꺾 누르며 지냈다.

그러다 2014년 1월, 갑상선암 악성 판정을 받았다. 0.1cm 암덩어리가 3개, 0.3cm 1개, 0.7cm 1개 등 총 5개로 의사는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했다. 막상 암이라고 판정이 나니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빨리 수술해서 암덩어리를 떼어내 버려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청견 스님을 뵈고 마음이 달라졌다. 스님께서서는 말도 못하고 참아서 생긴 병이니 그 근본 원인을 고쳐야 한다고 하셨다. 그 말씀에 내 마음이 움직였다. 매일 김해에서 대구까지 3시간을 운전해가며 수행했다.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신기하게도 절을 하면 기운이 생겨서 열심히 하기 시작했다.

3개월째, 10kg 이 감량되자 신이 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았던 나는 그동안 나를 사랑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방치했던 것이다. 4개월 뒤 검사에서 0.1cm 3개가 말끔히 없어졌다. 좋아지기 시작하자 이젠 피가 나서 수행하기

싫어졌다. 법당에 나오지 말고 집에서 혼자 수행해야지 하는 번뇌가 생겼다. 어떻게 내 마음을 아셨는지 스님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말씀 하셨다.

그러던 어느날 ‘부처님 크신 은혜 고맙습니다’ 염불수행 중에 한줄기 선명한 빛이 환하게 비치더니 몸과 마음이 새털처럼 가벼워지며 행복한 미소가 저절로 지어졌다. 며칠 뒤 염불수행 중에는 아주 밝은 광명이 광활한 우주처럼 펼쳐졌다. 그날 이후 나는 늘 행복한 미소가 입가에 걸렸고, 칙칙 같던 어두운 운명들이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삶을 포기하고픈 마음이었을 때, 아이들이 어찌 알았는지 밤마다 엄마 옆에서 서로 자겠다고 싸웠다. 내 마음이 다시 행복해지니 아이들의 그런 행동도 저절로 없어졌다.

남편은 부드러운 말투로 아이들과 대화를 했고 퇴근시간도 빨라졌다. 둘째와 셋째는 매일 절을 하며 성품이 차분해졌다. 여러 번 말하지 않아도 잘 실천했고, 집안에 화목하고 따뜻한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힘들고 마지못해 하던 수행이 이제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수행이 되었다.

암 판정 8 개월이 지난 10 월 검사에서 0.3cm 암덩어리가 없어지고 0.7cm 는 0.6cm 로 줄어들었으며 몸무게도 2kg 더 빠졌다. 이제 내 몸에 암이 있다는 생각조차 전혀 들지 않게 되었다.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이웃은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며 놀라워한다. 어떻게 절수행으로 암이 없어질 수 있는냐고 신기해하며, 가르쳐 달라고 한다.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 보인다며 앞 다투어 절수행을 배우겠다고 한다. 지인들을 초청해 저녁상을 대접하고 절을 가르쳤다. 정말 좋다며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몇 백배 더 행복했다.

스님께서 ‘갑상선 암 고맙습니다’ 하라고 하실 때만 해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갑상선 암으로 인해, 칙칙같이 어두웠던 나의 삶이 찬란하게 빛나는 행복의 삶으로 바뀌게 될 줄은...

나는 이제 아무것도 두렵지 않게 되었다. 다가오는 모든 문제와 괴로움들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 않게 되었다. 꿰뚫어 지켜보고 알아차리며 행복의 재료로 멋지게 요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다. 소중한 가치를 알려 주시고 이끌어 주신 고마우신 분들께 보답하고자,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소중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

법보신문 : 2015 년 7 월 1 일자에서 발췌

사찰요리:

### 들깨즙 냉콩국수

준비할 재료: 흰콩(또는 검은콩) 1 컵, 볶은 들깨 1 컵, 생수 8 컵, 소금 약간, 국수 300g, 오이 1/2 개

#### ◆ 이렇게 만듭니다

- ① 콩은 흰콩이나 검은콩으로 준비해서 들을 골라내고 씻는다.
- ② 콩에 5 컵 정도의 물을 붓고 3 시간 정도 불린다. 불리는 중간에 서너 번 씻어주면서 다시 물을 붓고 불려야 더욱 담백한 콩물이 되면서 비린 맛이 없어진다.
- ③ 냄비에 물을 붓고 끓으면 콩을 넣고 5 분 정도 우르르 끓인다. 너무 오래 삶으면 콩에 비린 맛이 돌면서 구수한 맛도 떨어진다.
- ④ 삶은 콩은 찬물에 여러 번 헹구 콩의 비릿한 내음을 없애고 껍질을 일일이 손으로 벗겨 비벼가면서 씻는다.
- ⑤ 콩 껍질을 말끔히 없애고 체에 건져 물기를 뺀다.
- ⑥ 믹서에 삶은 콩, 볶은 들깨, 생수를 부어 곱게 갈아 물을 조금 더 부어 농도를 맞춘 다음 체에 한번 걸러 시원하게 냉장 보관한다.
- ⑦ 끓는 물에 국수를 넣고 끓어오르면 찬물 1 컵을 붓고, 또 끓어오르면 찬물 1 컵을 붓고 국수가 투명해지면 재빨리 찬물에 헹구어 바구니에 건져 물기를 뺀다.
- ⑧ 그릇에 국수, 오이채를 담고 냉콩국물을 붓고 소금을 따로 담아내어 식성껏 간을 맞출 수 있게 하여 상에 낸다. (시원하게 먹으려면 얼음을 띄우는 것도 좋다.)

#### ◆ 조리포인트

요즘 검은콩을 이용한 요리들이 많습니다. 검은콩을 이용하여 콩국수 국물을 만들 때는 껍질 채로 믹서에 갈아서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검은깨를 조금 넣으면 더 맛이 있겠죠. 거른 콩 찌꺼기는 버리지 말고 신 김치를 조금 넣고 찌꺼기로 끓이시면 맛있는 비지찌개가 됩니다. 또 부침가루 반죽에 넣어서 먹어도 별미음식이 됩니다. 대부분 콩물을 만들 때 농도를 못 맞추신다고들 하시는데 농도는 각자의 취향에 맞게 조절하시면 됩니다. 묽은 국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물을 조금 더 넣어서 드시면 됩니다.


콩 자체는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약점이 있지만 이렇게 콩국을 만들어 먹으면 아무리 많이 먹어도 전혀 탈이 없습니다. 콩물에 남아 있는 식이섬유가 혈관을 깨끗이 해주고 변비를 예방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 여름을 이기는 음식으로는 제철에 나는 채소를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땀으로 소모되는 수분을 보충하고 체내에서 나는 열을 막기 위해서 수분이 많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영양가 많고 맛이 있는 냉콩국수로 더운 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 법회소식 NEWS

- 나를 만나고, 서로를 알게되는 곳, 그래서 행복해지는 곳, 붓다나라에서 행복한 나를 찾아 떠나는 7 주간의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를 실시 합니다.

	<b>Youth Dharma Summer Camp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b>
<p><b>특별 프로그램:</b></p> <p>☺ 1 박 2 일                  템플스테이 : 6 월 27 일 - 6 월 28 일</p>	<p>기간: 2015 년 6 월 13 일부터 7 월 25 일까지                  시간: 매주 토요일 오전 11 시 30 분부터 12 시 30 분 까지                  대상: 6 학년 - 12 학년                  내용:</p> <p>    기본 프로그램: 예불, 참선, 다도, 찬불가 배우기                  전통 문화와 전통 놀이 체험: 연꽃 및 등 만들기, 만다라 그리기, 공기놀이, 팽이 치기, 태권도 시범 등 다수                  생활 체험: 요리하기, 사찰예절, 봉사                  나를 찾기 체험: 4 컷 미래 만화그리기, 비전 카드 만들고 발표하기, 108 배</p> <p>①참선 과 행선: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                  ②스님과 의 차담: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한 수행자인 스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며 차를 나누는 시간                  ③예불: 부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시간이며 불성을 일깨우는 시간                  ④108 배: 아상에 찬 나를 낮추고 불성을 가진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는 수행법이며 매 순간마다 무념의 상태에서 불성을 만나는 체험의 시간</p>

- 청소년 달마 여름 캠프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불언티어를 필요로 합니다.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지도하고 이끌어주실 선생님들과, 뒤에서 후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지도하실 선생님들은 한국어와 영어가 되어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기둥입니다. 붓다나라는 청소년들이 올곧게 성장하는데 모든 후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 미국 독립기념 연휴로 애틀랜타 붓다나라 첫째주 일요일인 7 월 5 일 정기 법회는 쉽니다.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첫째주 일요 정기 법회는 있습니다.
- 신도님들의 요청에 의해 애틀랜타 붓다나라에서는 8 주간 불교 기초교리 강의가 있었습니다. 8 주 기초교리 강좌에 개근상은 발심행 임소영 불자 한 분 뿐 입니다. 다른 불자님들도 분발해 주셨으면 합니다.
- 제주 대학에서 워싱턴 대학으로 일년간 교환교수와 연구원으로 오신 고대만 박사님 과 강희경 박사님 내외분이 일년간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에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8 월에 한국으로 귀국 하십니다. 열악한 붓다나라 환경에서도 가족 모두가 법회에 참석하며 열심히 정진하셨을 뿐만 아니라, 해외포교 발전에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국에 무사히 귀국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가시더라도 미국에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붓다나라가 있었음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과 지속적인 인연 이어 갔으면 합니다.

이웃의 아픔은 함께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고, 기쁨은 함께 나누면 배가 된다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부처님의 동체대비 가르침을 실천할 때 입니다. 네팔 지진 참사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붓다나라에서 진행 하고 있습니다. 모금된 소중한 성금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운영하는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네팔 현지로 전해집니다. 많은 동참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세인트루이스 붓다나라 (314)993-0185; 애틀랜타 붓다나라 (770)945-5345

인등기도는 매달 첫째주 일요일 (세인트루이스) 과 둘째주 일요일 (애틀랜타)에 있고 매달 동참비는 \$10.00 입니다. 붓다나라 인등 기도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원 이루시길 축원 올립니다.

◇ 부처님 오신 날 아기 부처님 : Carl A. Graves

**Buddhanara Temple** 불자님들 주변의 소식을 접수 받습니다. 기쁜 일은 서로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픈일은 같이 나누면 반으로 된다는 부처님의 자비 사상에 입각해서 붓다나라 (Buddhanara Temple) 가족들의 경조사를 같이 나누었으면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매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는 꼭 참석하시어 항상 새로운 마음의 발심을 일으키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 불 합 시 다.